

# 장춘시 고속도로 건설 큰걸음... 올해 3가지 신기록

## 고속도로 연장선이 '14.5'말이면 '14.5' 초기의 두배로 증가

장춘시교통운수국에 따르면 올해 장춘시에서는 5갈래의 고속도로 즉역내 도시권 순환선 2기 공사, 서환선 구간, 연통산(반석시)-장춘 고속도로, 장춘-태평천(송원시 장령현) 고속도로, 장춘-유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여 그 연장선이 600킬로미터에 달한다. 그중 장춘-태평천 고속도로, 연통산-장춘 고속도로의 연통산-쌍양시 구간은 이미 9월말에 개통되었고 도시권 순환선 2기도 연말전으로 개통될 전망이다.



이미 마무리된 장춘 도시권 순환 고속도로 2기 K1+500 농안현 지가(迟家) 허브 공사

올해 장춘시는 최근 20년 도로건설사에서 '건설중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연장선이 가장 길며 개통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3가지 신기록을 냈다.

이에 앞서 장춘시의 고속도로 총연장선은 606킬로미터, '1 환선 6복사선' 도로망 구도로 현역간의 고속도로 연결이 취약하여 전 시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다그쳐 고속도로망을 촘촘히 짜고 장춘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이래 성당위, 성정부 및 성교통운수청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장춘시는 고속도로 건설 3년 난관 돌파전을 실시해 왔다.

오늘날과 과거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이다.

'14.5'말에 이르러 장춘시 고속도로는 '2 환선 9 복사선' 도로망 새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2 환'은 장춘 도시 순환 고속도로와 장춘 도시권 순환선을 말한다. '9 복사선'은 북경-할빈 고속도로 복단, 북경-할빈 고속도로 남단,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복단과 동단, 장춘-장백산 고속도로, 장춘-십수 고속도로, 연길-장춘 고속도로, 장춘-태평천 고속도로, 장춘-유수시 고속도로 (건설중)를 말한다. 고속도로의 총 연장선은 '14.5' 초기의 두배로 증가하여 1,200킬로미터에 도달, 현과 현 사이, 주요 도시와 이의

6개 현 사이의 모든 고속도로가 접속을 실현하고 전 시의 고속도로망 구도와 신속 원활 능력 및 봉사 수준이 전면적으로 격상되어 길림성의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일으킬 것이다.

장춘-태평천 고속도로: 이는 장춘시의 제 8복사선으로서 장춘시에서 성내 중서부지역을 복사하는 중요 간선도로이다. 동단은 장춘시 룽원구, 서단은 장령현 태평천인데 장춘시 관성구, 농안현, 쉐구리시공공작자지현을 경유한다.

이 고속도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금육수수벨트' 지대와 우리 나라 대형 상품광곡과 유리 기지를 지나고 내몽골자치구 퉁요시, 흥안맹 경내의 여러 기 및 현을 복사하는데 지역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봉사하는 '치부도로', '에너지도로', '관광도로'로 된다. 장춘시 주변 경제체에 대한 복사 견인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연선 지역이 장춘 현대화 도시권에 더욱 잘 융합되도록 촉진하며 주변 지역의 '주말 레저관광', '풍력발전 초원 관광', '전원생활 체험' 등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흥기시키고 농산물 해외 운송과 물자 운송이 더욱 편리해지게 함으로써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과 농업농촌 현대화 건설에 크게

힘을 실어주게 된다.

연통산-장춘 고속도로: 이는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의 병행선으로서 장춘시에서 전 성 중동부지역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및 훈춘통상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도로로 된다. 장차 장춘시와 쌍양, 길림시, 화전시 등 성내 중동부지역의 상호 접속과 소통을 강화하고 장춘의 동쪽 연선 산업 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하며 장춘시의 복사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게 된다.

이 도로는 길림성 고속도로망 구도를 완비시키고 장춘시와 길림시 교통운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연통산-장춘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한 장춘-장백산 북부 도로 (장춘-길림-돈화-안도-장백산), 남부 도로 (장춘-이통-반석-취남-정우-무송-장백산)의 중부 도로 (장춘-화전-장백산)가 되어 장춘-장백산 3갈래 고속도로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 장춘에서 연변 및 장백산으로 가는 또 한갈래의 고효율적이고 편리한 관광 도로를 개척하게 된다. 이로부터 지역의 관광자원 통합을 촉진하고 전 성 관광 브랜드 효과를 격상시키며 길림성 동부 황금관광대를 형성하는데 유리하다.

이 도로는 길림성 고속도로망 구도를 완비시키고 장춘시와 길림시 교통운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연통산-장춘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한 장춘-장백산 북부 도로 (장춘-길림-돈화-안도-장백산), 남부 도로 (장춘-이통-반석-취남-정우-무송-장백산)의 중부 도로 (장춘-화전-장백산)가 되어 장춘-장백산 3갈래 고속도로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 장춘에서 연변 및 장백산으로 가는 또 한갈래의 고효율적이고 편리한 관광 도로를 개척하게 된다. 이로부터 지역의 관광자원 통합을 촉진하고 전 성 관광 브랜드 효과를 격상시키며 길림성 동부 황금관광대를 형성하는데 유리하다.

## 연변 송이버섯 및 가공품 8월까지 154.9톤 수출

장춘해관 소속 연길해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관측은 적극적으로 기업을 도와 해외 송이 제품 시장을 분석하고 기업의 송이 정밀가공을 부추겼으며 통관 편리화 정책을 배합하여 송이버섯 제품의 해외 진출을 힘껏 도와나섰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연길해관을 거쳐 송이 및 가공품 154.9톤이 수출되었는데 이는 지난 동기보다 40.1% 증가된 양으로 그 가치는 6,329만 원에 달한다.

연변화도수출입무역유한회사에서 최근 몇대의 트럭이 신선한 송이버섯을 가공공장으로 운송했는데 이런 송이버섯은 각종 송이 제품으로 가공돼 해외 소비자의 식탁에 올랐다.

연변의 송이버섯은 밀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하기로 국내외에서 유명하다. 송이버섯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송이 수출입 무역 기업은 발전 형태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진하고 산업사슬을 확장하여 계절성 수출의 병목 현상을 돌파함으로써 올해 송이기업의 손실량을 50%-60% 줄이고 경제수익은 50% 이상 증가시켰다.

연변화도수출입무역유한회사 경리 리신위에 따르면 과거 회사는 신선한 송이버섯만 수출했는데 송이

가 쉽게 부패하기에 수출 유효기간이 짧았다. 해관의 정확한 지원하에 회사는 송이정밀가공기지를 건립하여 신선한 송이버섯의 품질 보증 기간을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이 제품의 수출도 증가시켜 경제수익을 크게 증가시켰다.

송이버섯 제품은 품질, 가공, 기술 등 면의 요구가 매우 높다. 연길해관은 주동적인 사전 봉사로 기업에 심입하여 관할구내의 3개 중점 송이가공기업에 정확한 봉사를 제공해주었다. 기업을 도와 공동으로 해외시장의 수요를 검토하고 상세한 수요 리스트를 구축해 기업이 국제시장의 동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기술 지원 강도를 높여 기업이 상품 추적 계통을 구축하도록 지도했으며 송이버섯의 가공으로부터 운수에 이르는 전반 과정에 대해 엄격한 추적과 기록을 진행하여 송이버섯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시켰다. 수입 식품에 대한 부당한 국가와 지역의 수입 기준에 비추어 기업의 실제 상황에 근거한 전문적인 기술지도를 제공하여 기업이 위험통제를 강화하고 송이 제품의 수출국 표준 도달을 확보하도록 했다.

/ 길림일보

## 길림성 개인 주택 대출 정책 조정

중국인민은행 길림성분행에 의하면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 결정과 조치를 관철 착각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강성하고 다양화 개선성 주택 수요를 더욱 잘 지지하며 길림성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 주택 대출의 최저 선불금 비례 정책을 최적화할 데 관한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 관리총국의 통지> 요구에 따라 길림성 시장 리를 정가(定价) 자물기제는 도시별 시책 원칙과 현지 부동산 시장 형세의 변화 및 도시 정부 조절

통제 요구에 따라 장춘시, 길림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사평시, 통화시, 백산시, 료원시, 송원시, 백산시 9개 시(주)의 개인 주택 대출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 가정에 대해 상업성 개인 주택 대출은 더는 첫번째 주택, 두번째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최저 선불금 비율을 15%로 통일한다. 이 정책은 2024년 10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길림일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 중저수입군체 수입 증대 촉진

10월 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소식발표회를 개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정책결은 중앙정치국이 회의에서 배치한 일련의 증량 정책을 착각하기 위한 소비 방면의 중점은 소비 촉진과 민생혜택을 결합시키고 중저수입군체의 수입 증대를 촉진하며 소비진작 행동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특정군체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인다. 국경절전 이미 특수빈곤 인원, 고아 등 곤난군중들에게 1차적 생활보조금을 발급한다. 학생사금 보조 표준을 높이고 정책 보급 면을 확대하며 전문대 학생, 분과생, 연구생 국가장학대출 한도를 높이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동한다.

둘째, '새로운 경제조직과 사회조직(两新)'과 결합하여 대중상품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동한다. 대규모 설비 경신과 소비품 보상교환 판매 사업은 수요 잠재력을 발굴하는데 유리할뿐더러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 및 전면적 친환경 전환 추동에 유리하다. 현재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보조 실시세척이 전면적으로 출시되고 자금이 전면적으로 하달되며 정책이 전면적으로 가동돼 승용차 소매량이 대폭 반등하고 가전제품 판매액이 감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자 행동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양로, 위탁보육 등 서비스 소비를 확대한다. 이 또한 현재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일로일소' 문제이다. 사회력량이 양로, 위탁보육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규범화하며 출산 지지 정책체계를 다그쳐 보완하고 기본출산과 아동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디지털 소비, 친환경 소비 등 신형 소비 업종형태를 육성하고 공공측 중고급 수요에 대한 적응성을 증강한다.

/ 인민넷

## <국가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지침> 발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데이터국 등 부서는 <국가 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26년말까지 국가 데이터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류통, 활용 인프라, 데이터 관리 등 데이터 분야의 기본적인 통용 국가표준 30여가지를 제정 및 수정한다.

해당 지침은 기본 통용 표준, 데이터 인프라 표준, 데이터 자원 표준, 데이터 기술 표준, 데이터 류통 표준, 융합 응용 표준, 보안 보장 표준 등 7개 부분으로 나뉜다.

이는 데이터 표준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종합적으로 지도해 데이터 관련 표준을 제정 및 수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말까지 표준 응용 시범 사례를 만들고 표준 검증 및 응용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하며 데이터 관리 능력 평가, 데이터 평가, 데이터 서비스 성과 평가 등 역량을 갖춘 제3자 표준화 서비스 기관을 육성할 방침이다.

/ 신화넷

### 국경절 연휴

#### 출입경 령객 1,309 만명 넘어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변경검사기관이 통계한 중국 국내외 출입경 인원은 연인수로 1,309만 8,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87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수치다.

8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그중 중국 대륙 주민은 758만 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확대됐다. 향향, 오펜, 대만 주민과 외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3.2%, 37.2%씩 늘어난 449만 4,000명, 101만 4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가이민관리국은 연휴 기간 출입경 승객 흐름을 과학적으로 예측해 승객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다.

/ 신화넷



### 국경절 연휴

#### 철도 리용객 1억 7,700 만명... 역대 최고 기록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령객수가 급증해 여러 항목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황금 연휴 특별운송 기간, 철도 령객 운송량은 연인원 총 1억 7,700만명, 하루 평균 철도 령객수는 약 1,774만명에 달했다.

1일 철도 령객수는 약 2,145만명으로 하루 령객량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하루 평균 1만 2,237편의 열차가 운행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 신화넷

## 통화의 인삼미식잔치 뜨거운 인기

미식은 사람들이 한 도시를 기억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된다.

국경절 연휴 기간 통화시는 독특한 관광자원과 다원화 문화관광 활동으로 시민과 령객에게 훌륭한 문화관광의 성연을 선물한 가운데 6일 인삼미식 시리즈-삼계탕대회가 인기를 누렸다.

하남성의 관광객 장씨는 격동되어 "현장의 분위기가 참 좋고 삼계탕 또한 특별히 감칠맛이 났다. 인삼미식은 우리 고장에서는 보기 힘들다. 이번에 찾아와 이곳의 풍토민정을 느껴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날 삼계탕대회에서 총 44개 삼계탕리팀이 기예를 전시했는데 통화시 특색인 인삼 식자재와 혁신적 조리 리념을 융합해낸 집집의 삼계탕은

한차례 '시각 + 미각'의 향연을 연출, 관광객과 시민 5만명을 매료시켰다. 가을 에너지 보충으로 삼계탕을 무료로 맛보고 그 조리법을 무료로 배우고... 활동 현장은 내내 인기가 화

끈했다. "인삼 + 닭고기 조리법이 이토록 많을 줄이야?! 동영상으로 육식껏 담았으니 돌아가서 통화의 이 미식을 만들어볼 것이다."



치차할시의 관광객 오연하는 식단을 가득 수확했다고 말한다.

강소성 태주 관광객 진희는 "삼계탕대회에서 진정한 인삼미식을 맛보면서 통화 인삼문화의 두터운 바탕을 느꼈고 인기 넘치는 현장에서 설을 쇠는 분위기를 느꼈다. 이런 대규모 인삼 향연을 직접 감상하면서 정말 시야를 넓혔다."고 말했다.

통화시는 인삼산업 발전의 길에서 동가강관류유기구, 첨단기술개발구, 동방서양삼약업산업단지, 통화현인삼문화산업단지, 류하운령산삼보호구 등을 관통하는 '인삼의 길'을 이어놓은 기초상에서 오늘날 '+ 관광'의 인삼산업의 다원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길림일보